

#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금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 두 번째 큰 기둥—생명

(1)

### 생명나무

성경: 창 2:9, 3:24, 계 2:7, 22:2, 14, 19

I.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서 우리의 음식이 되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을 보는 이상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생명나무가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에 언급되었다—창 2:9, 계 22:2, 14, 19.

A.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모든 속성들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창 1:26-27, 2:9.

B.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주시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만족시키신다—창 2:9.

C.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에 달렸는데, 이것은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딤후 1:4, 엡 3:9.

D.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다.

1.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동산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주의 중심은 생명나무이다.

2.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생명나무보다 더 중심되고 중대한 것은 없다—창 3:22, 계 22:14.

E.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라는 상징의 성취이심을 계시한다.

1.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라고 말한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로 상징된 생명을 가리킨다.

2.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된 생명이었다—요일 5:11-12.

3. 요한복음 1장 4절과 15장 5절을 함께 두고 본다면, 우리는 생명이자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생명나무이심을 깨달을 것이다.

F.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몫일 것이다—계 22:1-2.

1. 생명나무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도하셨던 것을 영원토록 성취한다—창 1:26, 2:9.

2. 생명나무가 열두 번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주님은 교회를 태초로, 곧 생명나무를 먹는 것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계 2:7.

- A.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무시해 왔고 자신에게 주님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계 22:14.
- B.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유기적으로 먹고 그분을 신진 대사적으로 동화시킴으로써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사람의 존재의 조성성분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음을 가리킨다—창 2:9, 16-17.
  - 1.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담는 그분의 그릇이 되기를 갈망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그분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하기를 원하신다—롬 9:21, 23, 요 6:57.
  - 2.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소화하고 동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조성이 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아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요일 5:11-12, 벧후 1:4.
- C. 생명나무의 본질은 생명수 안에 있다. 우리가 생명나무, 곧 생명의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반드시 생명수, 곧 생명의 본질이신 그분을 마셔야 한다—사 12:3-4, 요 4:14, 계 22:1-2.
- D.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 안에서 최우선(最優先)의 일이 되어야 한다—계 2:7, 요 6:57.

### III.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사람이 생명나무, 곧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자신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다시 열렸다—히 10:19-20, 계 22:14.

- A. 타락한 사람으로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창 3:1-6, 11-13, 22-24.
  - 1.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취하게 한 것은 바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창 3:1-6.
  - 2.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뜻한다—엡 4:17-18.
  - 3.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타는 칼로 금지하신 것은 (그룹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불로 상징되는) 거룩함과 (칼로 상징되는) 의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오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가리킨다—히 9:5, 12:29, 롬 2:5.
- B.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히 10:20, 마 27:51), 생명나무로 상징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인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누림을 위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C.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도록 자기의 걸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계 22:14.
  - 1.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모든 요구를 이룬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믿는 이들에게 다시 열렸다.
  - 2.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의 걸옷을 빼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안에서 생명나무를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누릴 권리를 갖는다—계 22:14.

### IV.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으로서 계속 신선한 열매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나무의 가지들로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생명 즙을 누린다—계 22:2, 요 15:5.

- A.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 원하시는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임을 계시한다—고전 6:17.

1.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는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창 1:26, 2:7.
2.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결합되어 한 생명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3. 이 하나는 유기적인 연결이자 생명 안에서의 연결, 곧 접붙여진 생명이다—요 15:4-5.
  - a. 접붙여진 생명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다. 접붙여진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연합이다.
  - b.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만 했다—요 1:14, 고전 2:2, 15:45.
  - c.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거듭난 이들로서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 곧 양편이 결합되어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만 한다—갈 2:20.
    - (2) 우리는 연합된 영에 의해, 곧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에 의해 접붙여진 생명을 살아야만 한다—고전 6:17, 롬 8:4.
  - d. 접붙여진 생명 안에서 사람의 생명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강화되고 높여지고 풍성하게 된다. 가지는 그 본질적인 특성을 계속 소유하고 있지만, 그 생명은 더 높은 생명 안으로 접붙여짐으로써 높여지고 변화된다—갈 2:20, 4:19, 엡 3:16-17상.
- B.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골 2:9),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께 연결되었다.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뿐 아니라, 그분께 연결되었고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의 일부이다—요 15:1, 4-5, 고전 6:17.

##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 하나님의 사상은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임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상징되신 그분 자신을  
 사람이 생명으로 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냄

생명나무(창 2:8-9)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영(요 4:24)이시므로 추상적인 분이시고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만지기 어려운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롭게 생명나무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표현하셨다. 생명나무는 특별한 나무이다.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바나나나무와 같은 다른 모든 나무들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명은 비밀스럽고 추상적이다.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매우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생명나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수년 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유명한 설교자이자 성경교사였던 사람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생명나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그가 합당한 성경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22장에서도 언급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어서 먹게 하실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통해 생명나무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내린다. 생명나무는 계속 존재하는데 생명나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명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역시 설명할 수 없다.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묘사에 따르면 생명나무는 외형상 포도나무이다. 이 구절은 생명나무가 강 양쪽에 자란다고 말한다. 즉 이 나무는 강을 따라 양쪽 가장자리에서 자란다. 위로 자라나는 소나무는 결코 강 양쪽으로 뻗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는 가능하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1절). 다른 포도나무들은 상징에 불과하다. 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15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이시고 이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시므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그들과 불 칼로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거룩함과 의가 있으신 분이시므로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오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지식나무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을 그가 막으려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창 3:1-6). 사람이 지식나무를 먹은 후 하나님은 생명나무 앞에 그룹들과 불 칼을 두어(창 3:24)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 칼을 두어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상징되는) 영광과 (불로 상징되는) 거룩함과 (칼로 상징되는) 의가 있으신 분이시므로 죄 있는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오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15절)을 가지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신다(11절). 주님은 칼로 심판하시며 그 칼은 그분의 의와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취할 수 없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위치를 상실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참여할 권리를 얻음**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의 요구를 이루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래의 위치로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 제물로 수행된 화해를 사용하셨다. 구약의 화해는 신약에 나온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였다. 화해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의 피를 드렸고 이 피를 지성소 안에 가져가 언약궤의 덮개 위에 뿌렸다(레 16:14-15). 언약궤 안, 즉 그 덮개 아래에는 십계명이 쓰인 두 판이 있었다.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황소의 피가 이 계명의 요구를 덮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십계명이 아닌 덮는 피만을 보실 수 있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가리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되었다. 이 화해의 결과는 화평이다. 화해 장소, 즉 언약궤의 덮개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화평 가운데 만날 수 있었다. 구약에서 성도들은 화해를 통해 그들의 만족을 얻도록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참여할 권리를 얻었다(시 36:8-9).

구약에서 화해는 신약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킨다. 이제 이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완전한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다.(새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27-30쪽)

##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심

사람의 창조에서 세 번째 두드러진 증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는 것이다(창 2:8-9).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혼과 함께 몸과 영을 갖고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하였다. 하나님은 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다.

성경에 있는 생명나무의 예표는 거의 모든 성경교사들을 당황하게 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며,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그 끝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아간다. 성경의 두 끝 사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통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하는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이를 것이다. 이 구절에 따르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나무는 생명에 관계된 어떤 것임에 틀림없다.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 곧 근원이다. 성경을 더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신약에 이른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이 구절의 ‘그분’이라는 단어는 1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가리킨다.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포도나무는 거짓된 것이다. 오직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이다. 포도나무는 하나의 나무이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 곧 생명과 나무를 함께 둔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갖는다. 생명나무는 누구인가?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시다.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이다. ... 궁극적으로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묘사되어 있다.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습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위로 가지를 뻗으면서 자라지 않고 오히려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강의 이쪽과 저쪽에서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강의 이쪽과 저쪽을 따라서 자라는 나무는 포도나무임에 틀림없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신성한 생명의 실체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이다. 이 나무는 사람이 생명의 조성성분이신 하나님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람이 취하여 먹기에 좋다(창 2:16, 요 6:57하). 이렇게 하여 사람과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한 인격으로 함께 산다(요 15:5, 빌 1:20-21상).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공급과 신성한 생명의 바로 그 실체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으며, 아주 높여져서 심지어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도 있다(롬 5:17).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들이 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될 것이다(계 3:21, 20:4).

그렇지만 나의 관찰에 따르면, 나는 수년에 걸쳐서 참으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성도를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 생명이 있다. 우리는 타고난 생명인 인간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인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 타고난 생명은 바로 우리, 곧 우리 자신이며, 신성한 생명 역시 한 인격, 곧 그리스도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두 인격이 있는데, 한 인격은 우리의 자아이며 다른 인격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두 인격으로서 두 생명,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온 생명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또 다른 생명을 갖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이다. 첫 번째 생명으로인가, 두 번째 생명으로인가? 타고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신성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아에 의해 사는가,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가? 다시 말하지만, 나는 매일 매시간 자신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교회생활 안에 매우 오래 있어 온 사람들 중에서도 발견하지 못했

다. 찬송가 381장과 378장과 382장(영한 동번 찬송가 841, 499, 501장)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이 찬송가들에 표현된 표준에 어울리는지를 보기 위해 우리의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창조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구원받아 그분에 의해 거듭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참으로 놀라운 예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과 영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 몸과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담은 사람으로서 살기에 아주 적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그분을 살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는 올바른 신사 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갈 2:20상)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기적인 연합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처신하고, 행하고, 살고,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홀로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연합되고 섞여져서 한 인격이 된 하나님-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유기적인 연합*, 34-37쪽)

### 생명나무 앞에 있는 먹는 그릇인 사람

이 부분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먹는 것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먹은 것은 결국 여러분이 된다. 어제 저녁에 나는 매우 맛있는 생선을 먹었다. 내가 그 생선을 먹기 전에 그것은 생선이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도 그 생선은 내가 되는 중이다. 어제 저녁 식사 때 나는 그것을 먹었다. 후에 나는 그것을 소화시켰다. 조금 후에 그것은 내 안으로 동화되어 결국 이 아침에 그것은 내가 되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림을 보라. 사람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안에는 수신기인 영을 갖고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사람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으로 이끄셨다(창 2:9). 이 생명나무는 먹기에 좋았다. 이것은 누군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과 같다. 일단 그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동화시키기 시작한다. 결국 그 음식은 그의 일부가 된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 사람을 빗나가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창 3:1-6).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되었다(창 3:22-24). 결국 주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하시려고 오셨다(요 10:10).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는데, 이 생명은 먹기에 좋은 나무인 생명나무의 생명이다(창 2:9).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참포도나무요(15:1, 5), 음식이며(6:35, 55), 먹기에 좋다고(51, 53, 57절)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구절의 그림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림과 같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은 생명나무 앞에 놓였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요 15:1)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씀을 본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교회들이 타락한 후에 주님은 오셔서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이기는 이들을 부르신다. 이기는 이들은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는 이들이다. 오늘날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생명나무가 천년왕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임을 상징한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은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으며, 장래에 이기는 모든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천 년 동안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영원 안에서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을 것이다(계 22:2). 생명나무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백성을 다 먹일 것이다. (*생명의 체험과 성장*, 13-14쪽)